

## News

### 중금리대출 늘리랴, 총량 지키랴... 머리 싸맨 인터넷은행들

동아일보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에 발목잡힌 인터넷은행... 비대면 대출 수요 폭증하는 반면 일부 대출 영업 중단... 그러나 중금리 대출 비중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야해 딜레마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은 카카오뱅크 20.8%, 케이뱅크 21.5%, 토스뱅크 34.9% 이상으로 맞춰야...무리한 중금리 대출 확대는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

### '메타버스' 시동거는 신한은행...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사업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자산 필요하다는 판단... 현재 기술 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로 법률 및 사업적 가능성 검토 후 최종 발행 확정 예정 이달 말 개념증명(POC)를 완료할 계획... 국내 은행 중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사업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

### 씨티은행, 한국 철수에 최대 15억달러 지출 예정

뉴시스

씨티그룹, 한국에서 소비자금융 부분 철수하는 데 최대 15억 달러(약 1조 7,760억 원) 지출 예정  
한국 포함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을 철수한 후 얻게 된 자본을 기업금융, 자산 관리 등 수익성 있는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

### 고가전세 규제 15억 이상 검토...전세 분할상환 의무화 안 해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고가 전세 보증제한, 분할상환 등 추가 규제 저울질 중... 정부가 시기와 대상은 못박지 않았으나 주요 고가주택 세입자가 타겟될 가능성 높아...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지 않겠다" 했으나, 일부 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에 분할상환 적용하면서 사실상 분할상환 의무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 존재

### "내년도 보험산업, 수익성·재무건전성 관리 중요"

보험매일

한국금융연구원, 보험산업은 내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꼽힐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  
보험산업에 긍정 및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금리상승 전환, 저출산·고령화 심화, 팬데믹, 신국제회계기준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 디지털화 가속화 등을 선정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손보사...車보험료 인하 압박 '촉각'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조치에 따른 손해를 하락으로 자동차보험이 4년만에 적자를 면했지만, 자동차 보험료 인하 분위기 형성 우려  
손보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으로 물가지수 포함에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여론 가능성에 촉각

### 증권사 ISA, 은행도 제쳤다...직투·세제 매력 안고 '헐헐'

아이뉴스24

증권사들, 은행을 제치고 ISA 가입자 급증 중... 9월 말 기준 가입자 수 172만 5,852명으로 올해 들어서 11배 이상 증가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가능과 손익 통산 혜택으로 큰 장점... 연말 앞두고 한도 채우기 위해 자금 더욱 몰릴 가능성

### 미래에셋증권 자산 관리 앱,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 적합성 심사 통과

조선비즈

미래에셋증권, 자사 통합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엠올(m.ALL)' 금융보안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 적합성 심사 통과  
다음달 중 서비스 시작 예정... 전방위적 고객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화 자산 관리, 연금 및 절세 등에 특화된 어드바이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출시 예정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